

농업체험 참여 학생 '식물친숙도 높다'

농진청, 초등생 교과 과정 연계 '상자텃밭 활용 프로그램' 적용 결과 친숙도 22% ↑... 대부분 체험 후 농업과 가까워져

농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식물친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초등학생에게 교과 과정과 연계한 '상자텃밭 활용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 어린이의 식물 친숙도가 2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자텃밭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 물, 토양 등 재배 조건에 대해 교육하고, 어린이 스스로 관찰하도록 이끄는 활동이다. 텃밭 조성 공간이 부족한 도심 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제약이 큰 모둠 텃밭 활동 대신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진청은 이 프로그램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28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초등학생들은 개인 상자텃밭에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은 텃밭을 꾸민 뒤 텃밭에 이물 붙이기, 식물 생장 관찰하기, 마요네즈로 해충 방제하기, 수확물을 활용한 요리

만들기, 허브식물 오감 체험 등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식물 친숙도는 88.21점(120만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72.21점보다 22% 정도 높았다.

이는 식물을 선택해 직접 키우고 식물 분류와 생육환경 등을 관찰하는 과정, 수확물 활용하는 과정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직접 키운 식물 수확에 뿌듯함을 느끼고 요리에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아울러 체험활동 뒤 식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70.3%, 농업 관련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85.1%를 차지해 대부분 학생이 텃밭활동을 통해 농업과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학교 교육상황을 고려해 이번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지침서를 발간하고,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고구마 수확의 기쁨 '만끽'

21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육포에서 고구마·명품 수확체험에서 어린이들이 고구마를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사로(www.nongsa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

업과장은 "도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는데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농업체험 프로그램

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깨끗한 축산 농장 만들어요'

전북농협, 실천면 한우생축장서 '방취림 식재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1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과 함께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맞아 무진장축협이 운영하는 실천면 한우생축장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농장 만들기 방취림 식재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과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황석관)·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 직원들이 참석해 울타리 조성을 위해 사철나무 1,500주를 식재하는 등 자연 친화적 축산 이미지

구축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박성일 본부장은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20.10.1~21.2.28) 동안 축산농가 및 축산종사자들은 한 치의 빈틈없이 ASF·구제역·AI 차단방역 및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를 지역주민과 축산현장에 맞게 활성화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경제발전 유공 모범기업에게 드립니다'

전주상의, 풀무원다는 등 5개 기업에 표창장 수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1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5개 기업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풀무원다는(주), (주)유니온씨티, 제너럴바이오(주), (주)경인타일상사, (주)레나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풀무원다는(주)(대표이사 정희련)은 나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의 투자로 기존 대비 2배의 생산능력을 확대했으며,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유니온씨티(임동욱 대표이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수많은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창출해 탄소발원벤치, 미세먼지흡터 등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일조했으며, 유럽 및 북미 국가에 탄소제품 마케팅과 더불어 고도화된 탄소기술을 홍보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제너럴바이오(주)(서정훈 대표이



(사진 왼쪽부터) (주)경인타일상사 김영록 대표이사, (주)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사, 제너럴바이오(주) 정석근 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 (주)레나나 이준조 대표이사, 풀무원다는(주) 고홍영 총무부장.

사)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지역 및 대구 경북 지역에 물품기부 및 구호물품을 담은 키트를 제공했으며, 평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인원의 30%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제공, 출퇴근 차량 운행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한 (주)경인타일상사(김영록 대표이사)는 전북권 중심기에 대형 물류창고를 준공해 고객관리를 위한 유통서비스 개선 및 도소매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주)레나나(이준조

대표이사)는 드론을 이용한 레이저 측량 기반의 3차원 지형모델링 기술 연구 및 고효율 태양광발전소 최적화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됐다.

이선홍 회장은 "올해 코로나19로 무척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노사 협력을 위한 신뢰경영,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수상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건협 전북도회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전주시와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21일 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포스코건설, (주)한라의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팀 김용팀장은 도내업체의 입찰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도 적극 권고했다. 또한 협회는 도내 전문건설업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적극 알리면서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포스코건설과 (주)한라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하도급전담팀은 협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해 공사현황을 확인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추구하고 지역 경제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홍보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혁신시제품 지정기업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1일 군산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가름 주식회사(대표 황영준)를 방문해 혁신시제품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관료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농업회사법인 가름 주식회사의 '벼 또는 종자 발아 생육을 위한 친환경 자연분해 멀칭제'는 자연분해 친환경 멀칭제에 종자를 접합시켜 멀칭과 파종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며 작물의 생장속도에 따라 자연분해가 되고 분해과정에서 유용한 미생물의 생장으로 약 30% 퇴비를 절감하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한 제품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큰알보리1호 등 6품종 45.2톤 생산계획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순도높은 맥류 종자생산을 위하여 맥류 적기 파종기인 10월 중·하순에 큰알보리1호 등 6품종 1.735ha에서 45.2톤 생산계획으로 파종했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품종을 추천받아 8월 하순 동계작물 종자생산 협의회를 거쳐 품종과 재배면적을 결정한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본식물을 인수하여 원종을 생산하고, 생산된 원종종자를 가지고 원종 종자를 생산해 보급용 생산용 종자를 국립종자원에 이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맥류 파종적기는 10월 중·하순으로 달리작 재배시에는 벼를 수확한 논에 보리나 밀을 10a당 30kg 정도 휴믹광산파를 하고 정작 재배시에는 콩이나 발작물을 수확한 후 경운과 설토를 한후 보리나 밀을 10a당 15~18kg 줄뿌림 파종을 하고 있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큰알보리1호(겉보리), 흰쌀보리, 누리찰쌀보리, 금강밀, 새금강밀, 곡우호밀 등 6품종을 재배지역과 포장을 구분 배치해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순도높은 종자를 생산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장영희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

가입혜택

-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
-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 6억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전·답·과수원(실제 영농에 이용)

신규상품

일시인출형 연금을 받으신 목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유형
전후후박형 생활비가 많이 드는 가입초기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유형
경영양형 은퇴 후 농지대비를 전제로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상담전화 063-650-7030~34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도내 식품기업 수출 판로 개척... 생진원,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

베트남 내 바이어 발굴 매칭

전라북도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중국 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한 가운데, 해외 수출 판로를 위해 Kotra와 협업체 지난 9월에서 10월 까지 총 83회의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 기간 이후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수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베트남 내에서 한국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바이어를 발굴해 직접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16일 온라인 화상상담회도 개최했다.

상담회에 앞서 생진원은 진흥원 내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온라인 화상 조



성 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원활히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상담을 위해 바이어들에게 상담 예정 기업의 상품 정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 전송, 샘플을 사전 발송해 시식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지역 내 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

들과 베트남 내 5개사 바이어들이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건수 8건, 상담액 700천불의 성과가 있었다. 이들 중 일부 기업은 견적 송부 등의 향후 추가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상담회에 참여한 제이온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라북도과 생진원이 직접 화상상담회를 주선해 줘서 상담이 유용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식품기업이 언택트 수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